

04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진정한 의미에서 바꾸고 싶다면 설득보다는 이해, 이해보다는 공감의 필요하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수사학]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설득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로고스’(이성, 논리), ‘에토스’(윤리, 도덕성), ‘파토스’(열정)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플라톤의 저서[파이드로스(소크라테스의 제자)]에서는 리더에게 레토릭(rhetoric, 수사학, 미사여구)이 필요하다는 파이드로스의 주장을 소크라테스가 비판하면서 ‘진실에 이르는 길은 대화밖에 없다’고 설득하고 있다.

- 히틀러의 마술적인 연설의 위력을 알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 조직의 리더라면 당연히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레토릭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치하고, 레토릭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에 관해서는 알아 두는 편이 좋다.